

지역 소식통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부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36건에 대해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총 6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 위원 9명이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농어촌주방개량 감면시 거주지 요건완화'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어업폐업신고 수수료 폐지', 장려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도개선',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규제개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 완화'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재무과 김소진 주무관의 '농어촌주방개량 감면시 거주지 요건 완화' 사례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을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법령을 완화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상담

부안군은 군민들에게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지난 10일 상서면사무소에서 진행했다.

이날 상담에는 박정희 세무사가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양도소득세(농지)와 상속·증여로 인한 절세방법, 개정된 국세(다주택 관련 양도소득) 관련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주민들의 세금과민 해결을 위해 지역내 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재능기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영훈 군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주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원전사고 대비책 팔걸어

정읍시, '행동 조치 매뉴얼 용역' 최종 보고회 시민 생명보호·재산피해 최소화 시스템 구축

정읍시가 방사선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전 사고 대비 안전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한빛원전 사고 대비 행동 조치 매뉴얼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와 행동 조치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한빛원전과 32km~68km에 위치해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방사선으로부터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읍시는 지난 10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한빛원전 사고 대비 행동 조치 매뉴얼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지진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폭등으로 인한 수동정지 사건 등으로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주민 보호를 위해 지역별 지형, 기상, 교통 등 제반 조건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행동 조치 매뉴얼을 구축하고자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장을 비롯한 용역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한빛원전 부근 평균풍속과 최대풍속을 분석하고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물질 도달시간과 방사능량을 산정했다. 또 정읍시의 기상과 지형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행동 조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수립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체계적인 원전 사고 대비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지역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원전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배 인기 여전... 올해 첫 미국 수출 길

46농가 황금배 13.8톤... 25억원의 소득창출이 예상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고창 배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으로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고창배 영농조합법인(대표 신진식)은 11일 오후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대미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실시하고 수출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 물량은 46농가가 정성스럽게 키운 황금배 13.8톤(약 5000만

개)이며,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약 25억원의 소득창출이 예상된다.

고창 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며 껍질이 얇고 과육이 연하며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2008년부터 수출을 추진해 지금까지, 미국, 대만, 베트남 등에 수출하며 한국 배의 위상을 알렸다.

고창배영농조합 신진식 대표는 "올

정읍시농기센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호응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 말일까지 지역의 청년창업 56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농업 관련 전문가, 선도농업인, 청년 농업인 총 3명으로 농학박사 전문가와 영농경력이 많은 선도농업인, 이미 정착한 청년 농업인으

로 구성됐다.

이들은 청년 농업인에 영농기술 컨설팅과 영농정착 애로사항 청취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네트워크 활동 지원, 영농기술보급 등 다양한 형태로 1:1 맞춤형 영농기술 지도와 독립경영체 마



전북 고창군이 지난 10일 고창읍 월암리 고창쌀 브랜드화 품종비교전시포에서 2020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밥 맛 뛰어난 고창 쌀의 비결은?"

고창군, 벼농사 종합평가회

전북 고창군이 지난 10일 고창읍 월암리 고창쌀 브랜드화 품종비교전시포에서 '2020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자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지역 쌀 재배 농가 등이 참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여름철 길 장마, 태풍으로 힘들었을 농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정성껏 재배한 벼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군은 고창쌀 브랜드화를 위해 '수광벼'를 선택했다. '수광벼'는 쌀 알이 맑고 투명해 밥 맛이 뛰어나고, 도열병이나 줄무늬 잎마름병 등에 강한 품종이다.

또 고품질 쌀 생산 실천기술 교육,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친 시민들에 '야간조명 불거리' 선사

수성 주공 사거리 교통섬

고래 · 곰 조형물 등 설치

정읍시 수성동 주공아파트 사거리 교통섬이 최근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마치고 화려하게 변신했다.

시는 야간 경관조명을 밝혀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응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수성 주공 사거리 교통섬 4곳 중 2곳에 곰 조형물과 불 조명을 설치, 야간경관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최근 남은 두 곳의 소나무 숲 910㎡ 면적에 은하수 조명을 깔고 4m 크기의 흰고래 조형물을 추가 설치했다.

이번 추가 설치를 통해 4개의 교통섬이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컬러의 빛을 연출하며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장관을 이룬다.

특히,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넓게 펼쳐진 은하수 조명 위에 흰색으로 밝



게 빛나며 솟구치는 고래 조형물은 경이로움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상상의 나라로 떠나는 꿈을 꾸게 한다.

점등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기상청 데이터를 전송받아 계절별 일출 시간부터 23시까지 자동으로 제어된다.

시는 연차적으로 경관조명 대상지를 선정,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경관을 본 수성동 주민은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친 시점에서 지나가는 길 잠깐이라도 발걸음을 멈춰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